

# 심리학에서의 조사연구

차 재 호\*

## 목 차

- |                    |                      |
|--------------------|----------------------|
| I. 조사연구의 개념        | V. 통계와 전산기기의 활용      |
| II. 심리학에서의 초기 조사활동 | VI. 통계학 조사연구법 교육     |
| III. 80년대의 조사들     | VII. 심리학에서의 조사연구의 특징 |
| IV. 90년대의 조사들      |                      |

Hyman(1954)은 조사연구(survey)의 3가지 종류, 즉 (1) 기술적 연구 (descriptive surveys), (2) 설명적 연구(explanatory surveys), 그리고 (3) 예언적 연구(prediction surveys)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단순히 기술만 하는 것으로 본인이 실태조사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된다. 세 번째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로 학문적 연구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의 “설명적 연구”는 그에 의하면 단순한 기술의 수준을 넘어 인과관계에 관심을 갖는 연구로 개념적으로나마 독립변인도 설정한다.

## I. 조사연구의 개념

본인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연구(survey research)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를 느낀다. 그것은 심리학에서 하는 조사연구라는 것이 본격적인 조사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사연구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도 본격적인 조사연구를 할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순수한 조사연구의 형태에서 벗어난, 경계에 속하는 조사연구를 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조사연구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조사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어지는 것이다.

---

\*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본인이 이 작업을 위해 본 책은 사회학자들이 쓴 Survey Research란 책인데(Backstrom & Hursh-Cesar, 1981), 저자들은 이 책에서 연구를 2(기술/설명) x 2(일반화 유무)로 구분해서 조사연구를 행동기술을 주목적으로 하고 일반화를 하는 연구로 분류하고 있다. 즉 아래 표에서 제2상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        | 일반화 없음   | 일반화 있음  |
|--------|--|---|
| 행동의 기술 | Small-group study<br>Depth interview<br>Key informant<br>Pretest<br>Any nonprobability study   | Census<br>One-time survey<br>Multiple-time survey<br>(independent samples; panel studies) |
| 행동의 설명 | Nonexperimental case study<br>Quasi-experimental study<br>Demonstration project<br>Critical incident/<br>focused interiew<br>Human laboratory experiment | Controlled field experiment<br><br>Simulation<br><br>Physical laboratory experiment       |

저자들은 또 소위 "모델 서베이(The Model Survey)"라는 것을 이용해서 조사연구의 모든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데, 모델 서베이란 모범적인 서베이를 의미한다. 잡다한 변형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인 예로 삼아 조사절차를 설명하는 것이다. 모델 서베이라는 개념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원형(prototype)과 같은 것이다. 원형이란 어떤 개념을 말할 때 가장 쉽게 떠오르는 예를 말한다. "조사연구"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것을 모델 서베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설정한 모델 서베이는 일회적인, 호구방문을 하고 사람을 직접 만나 하는,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이다(Backstrom & Hursh-Cesar, 1981, p. viii). 위 표의 제2상안에 있는 여러 조사형태중에서도 일회조사(one-time survey)가 가장 모델 조사에 가깝다는 것이다. 일회성 조사는 그 안에 몇 개의 성질이 다른 표본을 포함할 수 있다. 나머지 두 유형은 인구조사(cencus)와 반복 조사(multiple-time survey)인데, 인구조사는 모집단 전원을 조사한다. "일반화"가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일반화가 가능한 조사이다. 반복조사는 같은 모집단에 대해 거듭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이다. 반복조사는 독립표본조사(independent samples

survey)와 패널조사(panel survey)가 있는데, 전자는 반복할 때 마다 새 표본을 얻어 하는 것이고, 후자는 같은 표본에 대해 시간차를 두고 자료를 수집하는 형태이다.

이런 구분법을 제시하는 것은 조사연구란 개념의 경계가 그렇게 분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다. 아래 심리학계에서 수행한 많은 조사연구는 모델 서베이와는 거리가 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항상 이것이 과연 조사연구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위 4간표가 판단의 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쓰면서 본인은 나름대로 심리학자를 위한 조사연구의 기준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결론을 말하면 첫째, 조사연구가 되려면 연구가 무선표본을 얻거나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둘째, 연구가 질문지 등을 사용해 언어반응을 자료로 얻는 것이라야 한다는 두가지이다. 무선표본을 얻는다는 것을 일반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집단의 전집조사도 조사대상 선정에 임의성이 없다. 심리학에서는 질문지를 사용하되 임의표본을 얻어 자료를 얻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 기준에 의해서 소위 상관연구(correlational study)등 대다수의 심리학자가 사용하는 비실험적 연구가 조사연구에서 제외된다. 응답자의 언어반응에서 자료를 얻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응답자의 행동관찰에 의존하는 모든 연구형태를 조사연구에서 배제한다.

아래에서 드는 조사는 어떤 형태이든지 규정된 모집단(population)에 대한 sampling이 개재된 조사만을 든 것이다. 학급에서 어떤 질문지를 주어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는 제외했다. 표본의 임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집단 전수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포함시켰다. 어느 강의실에 들어있는 학생은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모집단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전수조사를 하던 무선 표본을 얻던 조사연구로 볼 수 없다. 또 비록 정상적인 방식으로 sampling을 해서 표본을 얻어도 그 목적이 검사제작을 위한 것이거나 검사의 규준(norm)을 만들기 위한 것들은 제외되었다. 더러 완전한 무선표본을 얻지 못한 연구도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그 연구가 조사를 지향했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아래 드는 조사들은 필자의 시야에 들어온 것들을 중심으로 다룬 것인데, 주요한, 진정으로 조사연구라고 할 수 있는 연구들은 대체로 망라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초기의 조사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 II. 심리학에서의 초기 조사활동

### ■ 교육학계 연구소들의 개설 : 교육학계로부터 귀동양으로 배운 조사연구

한국의 초기 조사연구의 시초는 교육학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중심에 중앙교육연구소가 있었다. 중앙교육연구소는 제1차 미국교육사절단과 UNESCO·UNKRA 派韓 교

육계행사절단의 권고로 문교부의 발의에 의해 대한교련 휘하에 1953년 부산 피난 수도에 개설되었다. 초대 조사연구부장은 서울대의 정범모 교수였는데, 6개월만에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조사연구부에는 5개의 연구실, 즉 교육행정연구실, 지역사회연구실, 교과과정연구실, 생활지도연구실, 그리고 교육평가연구실이 있었는데, 이중 제5연구실인 교육평가연구실이 교육평가와 심리측정을 연구영역으로 삼고 있었음으로 심리학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였다. 그밖에 제2연구실인 지역사회연구실이 다루는 문제 속에는 지역사회, 사회문제가 들어 있어 사회심리학이 관여할 수 있는 분야였으나 당시 한국의 심리학에는 사회심리학이 존재하지 않았다. 제3연구실은 주로 학습지도에 관한 것이니 심리학으로서는 학습심리를 전공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였으나 역시 학습심리를 공부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 제4연구실인 생활지도연구실은 카울셀링과 인간발달을 다루는 연구실로 여기도 발달심리학이나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심리학자가 일할 수 있는 자리였으나 이 분야도 당장은 전공한 사람이 없었다. 하긴 당시는 심리학자로서 전공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어떻든 신진 심리학자 중 몇 명은 이 연구소에서 연구수업을 쌓게 되었다. 이 연구소를 50년대와 60년대에 거쳐간 심리학과 출신들은 입소한 순서대로 전용신(전 고려대 교수), 차재호, 서봉연(이상 서울대 교수 역임), 이창우(성균관대 산업심리학과 교수 역임), 이주용(성신여대 교수 및 총장 역임), 그리고 전광문(전 서울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이다. 당시 서울에 있던 몇 안되는 심리학과 교수들은 연만하고 한두명을 제외하면 어떤 연구경험도 갖지 않았던 터라 이 연구소가 제공하는 실전경험은 소장 심리학자에게는 소중한 것이었다. 특히 조사연구가 자주 수행되었으므로 그 연구소를 거쳐간 사람은 조사연구에 대해서 자연히 조금씩은 알게 되었다.

중앙교육연구소는 1953년 2월 출발시부터 각종 실태조사와 검사제작, 검사 표준화 자료수집을 끊임 없이 벌여왔는데, 예를 들면, 1954년에 6편, 1955년에 6편, 그리고 1956년에는 4편, 1957년에 8편, 1958년에 8편, 1959년에 5편, 1960년에 7편이 나왔다. 이 속에는 조사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연수회에 나온 교원에게 질문지를 돌려 이를 회수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또 사범학교 학생은 면접원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연구협조는 문교부를 통해 협조요청 공문을 받아들고 가면 학교측의 전적인 협조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학교란 교육체계를 이용해서 자료를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간여있는 대상(captive respondents)을 조사하거나 관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인 조사연구의 개념과는 다른 형태의 조사가 많았다.

조사연구라고 볼 수 있는 연구가 1954년에 하나 보이는데, 이 “中學校 入試에 관한 輿論調査”는 국교6학년생 학부모 100명을 포함하는 성인 200명과 국교 5, 6학년과 중학 1년생 240명(국교

180, 중학 60명)에게 질문지에 답하게 했는데, 응답자는 “제반사정으로 서울특별시내에 한함”으로 되었고 연구소의 연구원 6명 전원이 자료수집에 나선 것으로 되어 있다. 표집에 관해서는 동 연구소 “실적개요”(중앙교육연구소, 1962)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연구원들이 임의로 책임량을 수집해서 쓴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들 중에 조사대상 선정에서 “무선표집”을 했다는 연구가 4개가 보였는데, 그중 김종서가 주연구자가 된 3개의 연구에서는 모두 “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했다는 말이 나오고 표집비율도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교육 실태 조사(1959)에서는 “경기도 주민의 2.7%를 무선표집(stratified random sampling)하였음”이라고 했고, 전국교육실태조사(1960)에서는 “층별 무선표집법에 의하여 전 인구의 .5%(109,548명)을 표집함”이라고 적혀있는데, 전국사범학교 학생들을 동원하여 가구주를 방문하여 면접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문명자 조사(1960)에서는 “층별 무선표집법(stratified random sampling technique)에 의하여 전인구의 .5%에 해당하는 109,795명을 표집하고 가구주와의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경우 random sampling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중앙교육연구소가 1973년에 해체되는데, 이 때를 전후해서 교육학자들이 주도하는 3개의 연구소가 생겼다. 하나는 1962년에 발족한 (1) 서울대 학생지도연구소였고, 두 번째는 1968년에 출범한 (2)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이고, 세 번째는 1972년에 출발해서 중앙교육연구소를 교체한 (3) 한국교육개발원이었다. 서울대 학생지도연구소가 개설되자 각 국립대학들은 잇달아 유사한 연구소를 설립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좀 예외로 하더라도 다른 연구소들에는 적지 않은 수의 심리학과 출신들이 진출했다. 이런 연구소들은 당시 갑짜기 늘기 시작한 대학원들에게 이제까지는 심리학과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연구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 1955년의 서울대 문리대 심리학과 “외국인에 대한 태도 조사”

심리학에서의 초기 조사연구는 본인이 아는 한 1955년에 수행된 “외국인에 대한 태도 조사”가 가장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때 본인은 학부 4년생이고 1년 선배인 서봉연 전 서울대 교수가 조교가 되어 4학년과 3학년생들을 데리고 조사연구계획을 추진했다. 이 조사는 당시 심리학과 교수인 이진숙 교수가 재학생들의 연구의욕도 고취하고, 실력도 쌓고, 또 학생간의 유대감도 높일 것을 생각해 조교인 서봉연에게 지시하고 약간의 비용을 과비에서 지출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재학생들에게는 무엇인가 실습을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실험연구도 전혀 할 게체가 아니어서 연구의 종류를 가릴 처지가 못되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서봉연은 다단계표집법을 사회학자인 남편 황성모 교수나 그의 어느 제자에게서 자료를 구해 학생들에게 읽히고 Bogardus scale이라는 것도 알아와서 그 조사에 포함시키려고 했다.

대비법(the paired comparison method)와 순위법(the rank order method)에 의한 측정도 문헌을 찾아 우리들이 읽기 시작했다. 그 조사를 통해서 나는 이들 방법에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그 후 대학원생활을 하는 동안 이들 측정방법, 특히 대비법에 대해서는 Thurstone의 원본문들을 모두 섭렵하여 빠삭하게 알게 되었다.

당시 서울시 일원의 대학생을 전집으로 잡고 표집을 진행했는데, 조사 결과를 산출하고 하는 일은 주로 내 몫이 되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도 결과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당시로서는 그것을 어디에 발표할지도 막연했었다. 그러다가 본인이 1963년 Fulbright 장학생 시험을 치면서 미국 유학을 꿈꾸게 되었는데, 미국가면 무엇인가 미국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그 조사의 결과를 영문타자기를 두들겨 극히 짧은 요약형태의 표들을 담은 보고서나 메모 같은 것을 만들었다. 당시 쓰던 종이는 얇은 복사용 타자용지인데, 이 메모는 5장쯤 되었던 것 같다. 1964년 유학 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 자료를 소중하게 가지고 미국 아리조아에서 캘리포니아로 옮기면서 늘 내 짐 속에는 누렇게 바랜 이 메모가 들어 있었다. 나는 1964년 여름 도미해서 1972년말 귀국, 1973년초부터 한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에 있던 8년 동안 이 메모를 꺼내 이야기할 기회는 한번도 없었다. 보일 것보다는 배울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유학생은 아주 드물어 아리조나의 투산(Tucson)의 아리조나 대학에는 전교에서 유색인종이 2-3명뿐이고 한국학생은 나를 포함해 2명이었다. UCLA에서는 1966년 심리학과 대학원 입학생 75명중 유색인은 어느 흑인여학생과 본인뿐이었다.

1986년 본인이 서울대 학생지도연구소 소장직에 있을 때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를 받아 외국인에 대한 태도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는데, 이때는 대학생만이 아니고 고교생과 성인도 포함시켰다. 그 보고서가 1992년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 1955년 조사의 결과를 포함시켜 36년만에 1955년 조사결과가 햇빛을 보게 되었다.

## ■ 1962년의 제2차 문리대 심리학과 “외국인에 대한 태도 조사”

1955년 조사는 앞으로 5년마다 반복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학생들이 졸업하고 서봉연 교수도 학교를 떠나니 계획대로 되지 못하다가 1962년에 조교가 된 金化中 전 경기대 교수가 주동이 되어 2차 조사가 이루어졌다(김화중, 정영운, 이훈구, 김홍정, 장현갑, 1963). 정영운과 이훈구는 당시 학부 4학년생이고 김홍정과 장현갑은 3학년생이었다. 한가지 달라진 것은 2차 조사는 바로 기사화되어 “심리학보”라는, 서울대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이 조직한 “토요세미나” 그룹이 발간한 잡지에 실렸다는 것이다. 이 그룹은 당시 학문적인 불온씨클과 같은 것이었다. 교수들이 공부 안하는 상황에서 매주 돌아가며 1-2명이 영어나 독일어로 된 논문이나 단행본

을 읽어 발표하기 위해 모였다. 어쨌든 이 당시는 나는 문리대 강사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조사 연구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거의 예외없이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계속했다. 1962년 조사에 참여한 학부 재학생들중 정영운(전 외국어대 교수)은 재학년에, 그리고 이훈구(전 연세대 심리학 교수)는 작년 초에 정년퇴임했다. 1955년 조사에는 서울시내 대학생 2,000명을 조사했는데, 1962년에 한 김화중의 조사에는 시내 대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 ■ 1962년의 서울대 문리대 통계학회의 “사회적 태도 조사”

이 조사는 학부생 중심의 학회인 “통계학회”라는 씨클이 주동이 되어 한 조사이다. 이 학회모임은 수학과 통계학 교수(전임강사?)이던 최지훈 교수와 심리학과 시간강사였던 본인이 지도교수로 되어 있었는데, 영국의 심리학자 Eysenck가 만든 Social Attitude Test를 번안하여 사용한 조사였다. 번안은 본인이 했는데, 당시 회장이 이훈구였기 때문에 심리학적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이다. 이 태도검사는 보수-진보(Conservative -Radical)와 강경-온건(Tough-Tender)의 2차원을 켈 수 있도록 된 것인데, 이 도구를 사용해서 종교집단(불교인, 기독교인, 개톨릭교인)과 비종교집단을 조사하도록 지도했다. 조사의 목적은 이들 4개 집단이 이 두 차원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보는 것이었다. 이 검사는 영국에서 보수당, 자유당, 사회당, 공산당, 그리고 팻쇼당에 적용되었는데, 공산당과 사회당은 진보쪽에, 나머지는 보수 편에, 그리고 팻쇼와 공산당은 강경쪽에, 그리고 나머지는 온건쪽에 분류되어 나왔다. 한국의 결과는 모두 보수로만 나와 재미가 없었지만 그래서 강경-온건차원에서는 비종교인이 강경쪽이고, 나머지는 온건으로 나왔다. 종교집단 중에는 불교인이 보다 강경한 편이고 다음이 기독교인, 그리고 개톨릭교인의 순이었다.

이 조사에서는 대학생들이 대상인데, 각 집단은 임의표본이었다. 불교인은 동국대의 불교대생 55명, 개톨릭교인은 성신개톨릭대 학생 55명, 기독교인(신교)은 한국신학대 재학생 56명, 그리고 비종교인은 문리대생 65명을 뽑아 조사했다. 구체적인 문항중에서 한 가지 결과에 대해서만 말하면, 사형폐지에 대해 가장 반대하는 집단은 불교도와 비종교인이고 개톨릭교인과 신교인들은 비슷한 정도로 폐지를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통계학회의 조사결과 발표는 1962년 5월 25일에 있었던 학림제(學林祭)에서 이 학회가 가졌던 연구발표회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발표 제1부에서는 통계학과 3학년 학생인 吳世英이 “통계의 올바른 운용”이란 발표를 했고, 제2부에서는 심리학과 3학년 李勳求가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사회적 태도조사”를 발표했다. 이훈구의 발표 내용은 대학신문에 자세히 7개의 도표까지 곁들여 실렸다(대학신문 1962.6.4.). 이 기사는 “佛敎徒가 死刑廢止에 不贊”이란 표제를 대활자로 내걸었다. 이 신문기사에 나온 조사결과는 이훈구가 정년퇴임에 맞추어 펴낸 “대학이 변하고 있다: 캠퍼스 라이프 연구”란 책에도 그 후에 최근에 수집한 자료들과 함께 다시 실렸는데(이

훈구, 2005, pp. 12-21), 그는 이 부분의 끝에서 내가 지도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적고 있는데, 이 글을 쓰면서 그때 사용했던 질문지 문항에 대해 물어왔길래, 본인은 누렇게 변한 원 질문지를 하나 찾아내 복사본을 보내주었는데, 이것을 받아보고 반가워서 그런 말을 적었던 것 같다.

이 학회의 동향을 전하는 기사가 그해 다음달 동아일보의 “대학씨클”이란 란에도 소개되었다(동아일보 1962.7.17.). 짧은 기사이기에 전문을 소개한다:

통계학회 지난해 겨울방학중에 數學, 心理學科생들이 內務部 統計局에 가서 IBM 등 諸般統計調査를 실습한 것이 토대가 되어 발전한 것--금년엔 文理大 초유의 “學林祭”에서 예산의 보조를 받아,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사회적 태도”를 통계적으로 조사, 발표하여 학내는 물론 사회인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소식. 여지껏 수학과와 崔至薰教授 및 심리학과와 車載浩教授의 지도를 받아왔는데, 다음학기부터는 새로 사회학과와 손을 잡고 현대인의 “모랄, 테스트”를 해볼 작정이라고--. 더욱 동학회가 주동이 되어 문리대내에 統計學科의 신설을 추진중에 있다고.

이 당시 최지훈씨는 통계학 담당의 수학과 조교수나 전임강사였고 본인은 심리학과와 시간강사로서 심리통계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다. 서울대에서의 나의 첫 강의의 수강생중의 하나가 이훈구였다. 이 조사가 이루질 무렵 내무부 통계국에 미국에서 card sorter가 수입되어 설치되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어떤 자료가 생기면 keypuncher로 카드에 침공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기계에 넣어 카드를 분류 받아가지고 나오곤 했다. 당시 “통계학회”의 학생들은 최지훈 교수의 주선으로 내무부 통계국에 가서 이런 기계를 구경하고 자료처리 실습도 좀 했을 것이다. 본인도 한번 가서 기계가 작동되는 것을 그저 구경만 한 기억이 난다.

## ■ 1960년대의 서울대 학생지도연구소의 조사연구활동

위에서 본 조사활동은 학부생들의 주축이 된 일종의 학습활동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 무렵 서울대 학생생활연구(1962년 설립)에서는 일련의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런 조사연구는 (1) 학생실태조사, (2) 신입생 성격검사, (3) 신입생 문제조사, (4) 인간관 조사, 그리고 (5) 고교시절 과외공부 실태조사로 나누어진다(차재호, 구정숙, 1988). 이들 조사는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본격적인 조사연구들인데, 다만 흔한 종류의 조사와는 달리 서울대 입학생이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말하자면 갇힌 응답자(captive respondents)에 대한 조사이다. 대상이 서울대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한정되고 경계도 분명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전집조사로 자료를 수집했다. 다시 말하면 표집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입생의 실태조사에는 질문지만 만들고 자료를 수집할 시점만 정하면, 자료 수집은 대학의 행정절차의 일부가 되었다. 학생실태조사의 경우, 신입생의 입학이 결정된 후 신체검사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때 신입



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대학이 내주는 질문지를 기입하게 해서 제출하게 하면 조사자료 수집은 끝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표집방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었다.

이 당시 학생지도연구소는 1962년 설립 후 2년 뒤인 1964년부터 위에서 든 각종 조사를 실시했는데, 어떤 것은 매년, 어떤 것은 부정기적으로 실시했다. 이런 조사가 시작될 무렵 연구소의 아무도 조사연구에 특별히 훈련을 쌓은 사람은 없었다. 단지 연구소의 지도위원(교수급 연구원) 급에는 최근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정범모 교수가 있었고, 강사급의 연구원들도 그의 강의를 들어 통계학의 훈련은 돼 있었던 참이었다. 통계학 교육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학생지도연구소의 조사활동은 사범대 교육학과 출신과 문리대 심리학과 출신 연구원들이 같이 담당했는데, 따라서 이를 순수히 심리학의 조사연구활동이라 볼 수는 없다. 당시 조사가 다룬 심리학적 내용은 신입생 성격검사, 신입생 문제조사, 그리고 인간관 조사의 세분야에 국한되었다. 나머지 조사들은 교육학이나 심리학 어느 쪽에도 분명하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1964년부터 1970년대초에 걸친 조사만을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1960년대 초에는 주로 전과문제, 경제문제,, 가족관계문제, 등을 다루었다. 그러나 1965년에는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와 고민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 문제 척크리스트”가 사용되었다. 1970년부터1974년까지의 기간에는 고교생활이나 고교 교육에 대해 묻는 질문이 포함되고, 또 국가관, 사회관, 지도자관 등 신입생의 정치사회적 태도 및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무렵에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신입생의 의식구조, 의식태도, 또는 국가관이란 제목이 붙은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다.

1964년부터 1967년, 그리고 1969년, 그리고 1970년과 1971년에는 신입생에서 노이로제 경향이 있는 학생을 가려내기 위해 영국의 심리학자 Eysenck가 만든 Maudsely Medical Questionnaire (MMQ)가 사용되었다. 1967년 신입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Philosophy of Human Nature Scale”이라는 심리검사를 번안해서 실시했다. 이것은 신입생들의 인간관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상에서 조금씩 든 것은 심리학적 내용을 담은 조사들만을 골라 든 것이다. 당시 연구소는 그 외에 대학의 학생지도나 학생들의 생활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조사들도 많이 수행했었다. 사실 이런 자료수집은 해마다 거듭되었으므로 당시의 학생들이나 한국사회의 움직임 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1983년까지는 해마다 질문내용이 바뀌어 연차적 변동추세를 알아보기 힘들었으나 1983년부터 질문을 될 수 있는대로 표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 부득이 새로운 질문을 도입해야 할 때는 전년도의 질문을 유지하고 새 질문을 첨가하는 식으로 연차적 비교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질문지를 설계했다.

이렇게 보면 심리학 ‘쪽에서 조사연구의 흐름을 이끈 것은 서울대 학생지도연구소에 있던

심리학도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흐름은 좀 뒤에 한국행동과학연구소로 이어진다. 이 두 연구소는 60년대와 70년대의 심리학자들에게는 유일한 활동무대를 제공한 곳이다. 심리학 쪽의 조사연구 흐름이라고 하지만 학생지도연구소는 기구의 성질상 교육학 쪽에 더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한국행동과학연구소는 달랐다. 다루는 문제가 교육적인 문제보다는 일반 사회적인 문제와 본격적인 심리학적 문제영역에까지 확장되어 있었고, 연구인원도 교육학과 출신보다 심리학과 출신이 더 많은 경우가 되었다.

### ■ 1970년대 초의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조사연구 활동

이 연구소는 1968년에 설립되어 1970년대초에 절정에 달했다가 다른 분야에 국고지원을 받는 큰 연구소들이 생겨나면서 위상이 크게 위축되었지만 아직도 이 연구소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전성기에는 동남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연구소로 소문이나 멀리서 시찰을 올 정도였다.

이 연구소에서 본격적인 심리학적 조사연구가 3개 있었는데, 이들은 (1) 1970년의 Psychological perspectives: Family planning in Korea(정범모, 이상주, J.A. Palmore, 이성진, 1972)라는 가족계획에 관한 KAP 조사, (2) 1973년에 실시된 남아존중 연구(차재호, 정범모, 이성진, 1975), 그리고 (3) The value of children 조사(이성진, 김정오, 1979)이다. 첫 번째 것은 USAID/K의 지원으로, 두 번째 것은 Ford-Rockefeller재단의 지원으로,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캐나다의 IDRC(국제개발연구소)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1) 가족계획의 심리학적 탐색 연구 프로젝트

첫 프로젝트인 Family planning in Korea는 USAID/K로부터 약 20만불의 연구비를 받았는데, 이 금액은 해방후 가장 큰 규모의 연구비로 여겨지고 있다(이훈구, 1998). 이 연구는 하와이 대학의 사회학자들 여럿, 그리고 UC Berkeley의 교수 등 미국학자들을 자문으로 삼고 이상주와 이성진 같은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돌아온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수행한 조사로 국제적인 조사이다. 연구진용으로 본다면 사회학자와 교육학자들이 주동역할을 한 조사인데, 그런 의미에서 심리학계의 조사는 아니다. 그러나 보고서로 나온 책의 Psychological perspectives: Family planning in Korea라는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당시 유행하던 인구사회경제적 변인을 주로 다루던 인구학적인 연구와는 달리 이 조사는 심리학적 변인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조사였다. 이렇게 연구의 방향을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돌리게 만든 것은 정범모 교수로 알려져 있다. 또 이 연구의 세부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연구진들의 상당수가 막 석사를 끝냈거나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심리학도였다는 점도 이 조사를 종래의 가족계획 연구와 차별화하게 만든다.<sup>1)</sup>

이 연구가 심리학적이란 것은 독립변인으로 (1) 가치관, (2) 태도, 그리고 (3) 환경압력을

독립변인으로 잡고 이들이 현존자녀수, 이상자녀수, 피임지식, 피임행동(경험, 피임여부, 피임이도)와 같은 개념적 종속변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려했다 (이훈구, 1998). 가치관은 Kluckhohn의 가치관 이론을 토대로 한 척도를 만들어 사용했고, 태도변인으로는 modernity attitude라고 연구자들이 부른 것과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 척도를 새로 만들어 사용했다. 이 연구가 주력했던 것은 가치관이나 태도를 단일질문으로 재지 않고 여러 문항으로 된 척도를 통해서 재려 한 것이다.

표집은 제주도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가임부인을 대상으로 했고, 전국에서 1,883명의 무선표본을 얻어 방문을 통한 질문지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표본추출은 Univ. of Hawaii의 박재빈 교수의 지도를 받아 행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당시로서는 표집과정에서 흠 잡을 데가 없는 드문 연구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조사자료가 어떻게 얻어졌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본인이 귀국에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지휘하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훈련을 받고 나간 조사원들이 여관에서 대상자를 찾지 못하거나 시간이 없으면 여관방에 앉아서 질문지를 기입한 예도 있었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가치관이나 태도와 같은 심리적 변인이 출산행동이나 피임과 같은 가족계획행동과 멋지게 상관될 것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가치관이 가장 결과를 잘 예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예상외로 환경압력이 가장 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을 나타냈다. 여기서 환경압력이란 절에 있는 인물, 예컨대, 시부모와 남편 같은 사람의 생각이다.

이 조사의 결과로 가족계획과 관련해서 몇 개의 집단을 구별하게 만들었는데, 즉, 조기피임실천자, 인공유산반복경험자, 인공유산/피임 겸용자, 가족계획정보보급자, 그리고 남아존중집단 등이다. 이런 집단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의 목표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남아존중집단의 부각도 그 한 예로 정부는 남아존중집단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서두르게 되었다. 또 연구소의 두 번째 프로젝트로 남아존중 연구를 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연구소의 Family planning in Korea 프로젝트는 1970년에 착수하여 1년내에 완수되고 바로 영문보고서가 책으로 발간되었다. 그래서 성공작으로 평가되어 연구소는 다른 연구지원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소는 1972년에 Ford-Rockefeller 재단으로부터 남아존중 프로젝트의 지원을 확보했다.

## (2) 남아존중 연구 프로젝트

연구소의 두 번째 프로젝트인 남아선호 연구는 본인이 지휘를 맡아 수행했다. 본인이 1972년

---

1) 이 제1프로젝트에 참가한 인원은 연구원은 이훈구, 공정자, 최상진의 3인이었고, 연구조원으로 참가한 사람으로는 이종승, 김정오, 조애도, 김정희, 오성심, 김태환, 그리고 여중철이 있었다. 이들 중 이훈구, 최상진, 김정오, 김정희, 김태환은 심리학과 출신들이었다.

크리스마스 무렵 미국에서 귀국해서 바로 연구소에 합류했을 때 가족계획의 심리학적 탐색 연구 프로젝트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 귀국후 약 1주일만인 1973년초부터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자문교수란 직책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 연구소는 이미 정범모와 이성진의 명의로 남아존중 프로젝트의 연구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 나는 다만 이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진행 시키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 팀에는 모두 10명의 연구원과 4명의 연구조원이 있었는데, 대부분 석사학위를 마친 면면이었고 5명을 제외하고 모두 심리학과 출신들이었다. 연구원과 연구조원 14명중 5명은 이미 제1차 프로젝트로 조사를 거쳐온 조사의 베테란들이었다.<sup>2)</sup> 그리고 이들 5명 모두는 심리학과 출신들이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가 병행되었는데, 여기서는 후자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이 프로젝트로의 일환으로 7-8개의 별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주된 연구는 부인이 45세 이상이며 2명 이상의 아이를 둔 501쌍의 기혼부부였다. 표집계획에는 3개의 다른 집단을 얻기로 했는데, 전남집단(아들만 가진 부부), 혼성집단(아들 딸 모두를 가진 부부), 그리고 전여집단(딸만 가진 부부)가 그것이다. 이들 집단은 다시 생활수준에 따라 각각 서울-중류, 서울-하류, 그리고 농촌으로 구분되었다. 전여집단이 149쌍, 전남집단이 159쌍, 그리고 혼성집단이 193쌍이었다. 서울-중류, 서울-하류, 그리고 농촌의 부부쌍 수는 각각 138, 148, 그리고 215였다. 처음부터 대상집단을 집단×생활수준 (3×3)으로 실험설계처럼 계획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을 전남, 전여, 그리고 혼성집단으로 나눈 것은 본인이 출산의도는 태도(남아존중)와 부인의 상황(자녀성구성, 자녀수 등)의 함수로 개념화하고 연구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표본은 먼저 생활수준 별로 했는데, 서울에서는 3개 동을 뽑고, 그 안에 있는 통들을 중류와 하류로 분류했다. 농촌은 경상북도의 한 군을 임의로 선정하고 그 안에서 2개의 면을 다시 임의로 선정해 조사했다. 이렇게 뽑힌 지역 안에서 전여, 전남, 그리고 혼성 가정을 가려냈는데, 대개 전여표본이 원하는 수만큼 확보되면 더 이상 조사대상 지역을 확대하지 않았다. 다른 유형의 가정보다 희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서 제시한 집단의 부부쌍 수도 전여집단이 가장 작게 나온 것이다. 일단 대상으로 선정한 지역안에서는 모든 전여, 전남, 그리고 혼성 부부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전집조사를 원칙으로 한 것이다.

본인은 이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을 당시 조사연구 경험이란 1952년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 조사와 1962년의 통계학회 조사를 지도한 것밖에 없었다. 이 프로젝트 팀을 맡고 우선 팀과 문제의 개념화를 다루었는데, 본인은 남아존중을 일차원적인 남아존중-비 남아존중이나 남아존중-여아존중이란 1차원으로 보기보다는 남아가치와 여아가치란 2개차원이 개입된 것으로

2)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진의 면면들을 보면 연구원은 孔楨子, 李滿英, 金正午, 李恩玉, 金炳聲, 金貞姬, 李勳求, 盧翊相, 金琪正, 李相彬이 있었고, 연구조원으로는 金泰煥, 金哲洙, 洪性烈, 그리고 尹文淑이 있었다.

개념화했다. 남아존중이란 남아가치>여아가치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개념화했다. 당시 여아가치는 아주 낮은 것을 간주해 사실상 남아존중은 남아가치 내지 남아욕구의 강도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남아욕구와 직접 관련있는 환경요인은 자녀 성구성이다. 아들이 없는 부인에게서는 아들욕구가 특히 높을 것을 가정했다. 그래서 표집을 전남집단, 혼성집단, 전여집단(딸만 둔 집단)으로 나누어 하게 된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개관은 본인이 써 놓은 것이 있다(차재호, 1998). 이 조사는 보고서가 영문(Chung, Lee, & Cha, 1974) 과 다음에 국문(차재호, 정범모, 이성진, 1975)으로 작성된 후 좋은 평을 받았다. 이 연구는 당시 남아존중 연구에 관한 세계의 선두에 서 있었다.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한 비판(Williamson, 1976)을 소개한다:

We are fortunate that there are two good reviews of the boy preference literature(Kong and Cha, 1974; Chung, Cha, and Lee, 1974). This second work is an amazingly rich collection of many studies on boy preference using the historical approach, the case study approach, the anthropological approach, and the survey approach. Samples range from sonless couples to students of all ages to elites. This work is the most outstanding in the sex preference literature and will fortunately soon be available as part of the Rose Monograph Series.(p. 102)

### (3) 자녀관(VOC) 연구

연구소의 세 번째 프로젝트는 자녀관 또는 자녀가치(value of children-VOC) 연구로 이 프로젝트는 하와이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James T. Fawcett의 발상에 의해 생긴 대만,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그리고 미국의 6개국이 참여하는 비교문화 연구였다(Arnold, Bulatao, Buripakdi, Chung, Fawcett, Iritani, Lee, & Wu, 1975), 한국측의 연구 책임자는 이성진이었다. 그러나 실제 연구는 그와 김정오가 수행했다(Lee & Kim, 1979). 이 연구는 각국이 공통적으로 (1) 부부가 자녀를 원하는 이유를 구조화된 질문과 자유응답 질문으로 얻어 분석하고, (2) 자녀관이 형성되는 조건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3) 출산동기와 원하는 자족크기 및 출산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시켰다. 이 조사는 질문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부여하는 긍정적 가치(각종 이득, 이익, 장점)와 부정적 가치(각종 부담, 제약)의 내용을 알아보는 데 주력했다.

질문지는 VOC관련, 출산관련, 출산통제 관련, 조정변인관련, 그리고 응답자 배경관련 질문 등 80여개 질문/척도로 구성되었다. 표집대상은 1인 이상의 아이를 가진 동거중인 부부로서 부인은 20-34세여야 하고 남편은 20-40세여야 했다. 대상의 층화는 남아존중 연구에서처럼 도시-중류, 도시-하류, 그리고 논촌의 3개로 하고, 각 층에서 부인 60명(총 180명), 남편 각 60명(총 180명), 총 360명을 뽑게 되어있었으나 한국조사의 경우 378명의 자료를 얻어 분석했다. 각 층에서의 뽑은 표본들은 무선표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김정오, 1998). 한국연구는

1972에서 1974년간에 수행되었다.

### Ⅲ. 80년대의 연구들

#### ■ 서울대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 조사들

차재호는 80년대에 들어와 1988년의 대규모 전국조사를 포함해서 3차례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조사를 실시했는데(차재호, 1992), 다른 두 번은 서울시내의 대학생을 전집으로 한 조사로서 본인이 사회심리학의 수강하는 학생들을 조사원으로 사용한 조사 실습을 겸한 조사였다. 1982년에는 대학생 150명을 체계적 무선표본법으로 얻어 조사했고(차재호, 장영수, 1982), 1985년에는 서울시내 4년제 대학 35개에서 체계적 무선표집으로 뽑은 3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차재호, 나은영, 1985). 이들은 심리학과 학생을 동원한 것이지만 세 번째인 1988년의 전국조사는 문교부 1986년도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로서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 프로젝트로 진행된 조사였다. 이 조사는 앞서 언급한 대로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교생과 성인이 모두 조사대상이 된 대규모 조사였는데, 올림픽게임 무렵에 자료가 수집되었다. 준비가 늦어져 소련을 포함한 공산권국가에 대한 태도가 올림픽게임 전과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볼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연구였다. 88년 올림픽에는 한국에 오랜만에 공산권 국가들이 게임에 참여해서 한국 관중들로부터 적지 않은 환영을 받았었다.

#### ■ 학생지도연구소의 서울대생 집단특성 연구

이 조사는 “서울대생 집단특성 연구”라기 보다는 “5개 대학 학생 비교 조사”라고 불러야 할 조사이다. 이 조사는 1987년 조사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충북대, 그리고 부산대 재학생 각 800명(학년당 2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간 비교조사로 설계되었다. 서울대의 경우는 바로 그해 봄에 졸업한 졸업생 200명도 표집하였다. 질문지는 26쪽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원은 모두 사회조사를 필요로 하는 강의의 수강자들을 위주로 모집했으며 전원 서울대 재학생들이었다.

질문지 회수율은 서울대 100%, 연세대 96.9, 고려대 89.9%, 충북대 100%, 그리고부산대 100%이었다. 학년별 회수율은 1학년 96.1%, 2학년 100%, 3학년 97.3%, 그리고 4학년 96.8%였다. 졸업생은 73.5%였다.

질문지에 포함된 항목들은 (1) 가정환경, (2) 전공만족도 등 대학생활, (3) 이성 친구 유무 등 교우 및 이성관계, (4) 진로와 직업관, (5) 가치관과 인생에서 원하는 것, 그리고 (6)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태도이었다.

표집은 87학년도 1학기 “등록생 명부”를 입수해서 systematic random sampling을 통해 했는데, 첫 간격은 난수표에 의해 한명을 뽑고 그 다음부터는 정해진 간격에 따라 학생을 뽑아 대상 학생명단을 작성했다.

이 조사의 결과의 일부를 엿보면, 부모의 학력이 가장 높은 대학은 연세대이고, 부모의 월수입도 연세대가 가장 높았다. 학교에 대한 애착은 5개교가 모두 높은 편이나 가장 낮은 애착을 보인 것은 서울대였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에는 큰 차이가 있어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는 높고 충북대는 가장 낮았다. 서울대는 자부심은 높지만 학교에 대한 애착이 연고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충북대는 자부심은 바닥권이지만 학교에 대한 애착은 높은 편이었다. 성 경험율은 전반적으로 20%수준이었는데, 충북대가 가장 높아 30%수준을 보였다.

## IV. 90년대의 연구들

### ■ 1992년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 조사

1992년에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수행한 마지막 외국인에 대한 태도 조사(차재호, 최인철, 1992)가 이루어졌는데, 이 조사에서는 심리학과에서 “사회심리학 및 실험” 강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조사이므로 서울 일원의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는 수강자 약 30명이 담당했다. 이들은 각자 응답자 표본에서 지정된 응답자를 학교로 찾아가 접촉하고 질문지를 기입케 했다. 한 조사자가 담당할 응답자 수는 5~7명이었다. 조사결과 1988년 올림픽 이래 일본, 미국, 북한, 및 러시아에 대한 태도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 1985년, 그리고 1992년 조사는 본인의 사회심리학 강의에서 일종의 class exercise로 수행된 조사들로 각각 당시의 강의 조교를 지휘해서 조사를 진행시켰다. 수강생 전원이 조사대상자 몇 명씩을 할 당 받아 조사하는 것이었는데, 첫 class exercise 조사였던 1982년 조사는 서울대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했고, 그 뒤의 두 조사는 서울시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조교는 서울시내 4년제 대학의 목록을 만들고, 각 대학에서 학과별로 학년별 학생수를 파악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크기의 표본을 정한 다음 전체 학생수를 표본 크기로 나눠, 학생을 뽑는 간격으로 삼았다. 첫 간격 안에서의 응답자는 난수표에서 무선으로 뽑고 그 이후부터는 정해진 간격으로 사람을 뽑는데, 이런 방식으로 체계적 무선표집을 하면 “어느 대학의 무슨 과의 몇 학년 누구”까지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얻는 명단을 가지고 각 수강생이 조사할 명단을 적어주고, 이를 받은 수강생(조사자)는 해당 학교로 가서 응답자를 만나 질문지를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숙소를 찾아가서 자료를 수집했다. 이 방식은 세차례의 class exercise 조사에서 일관되게

사용된 것으로 비교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학생에게도 큰 부담없이 쓸만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여기서 얻은 자료를 공유해서 학기말에 보고서를 써 제출하게 했었다. 조사자에게는 지정된 응답자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질문지를 받아내는 것의 중요성을 주입시켰다.

앞에서 든 외국인에 대한 태도 조사 외에 90년대에 들어와 성격이 다른 2개의 조사가 있었는데, 1992년도의 정보화 실태를 다룬 조사와 1993년도의 교통수단 이용실태를 다룬 조사가 그것이다.

### ■ 1992년의 정보화사회를 위한 국민의식조사

1992년 2월에 한국심리학회에 “정보화사회를 위한 국민의식조사”를 주제로 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는데, 여기서 3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들은 (1) 이훈구(1992)의 “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식, 태도, 행동”, (2) 신용철과 박영호(1992)의 “수도권 성인 및 대학생의 정보사회화에 대한 의식 조사”, 그리고 차재호, 고재홍, 정지원(1992)의 (3) “서울과 마산지역의 초중고교 학생의 정보사회화에 관한 조사연구”였다.

이훈구의 연구는 연세대 학생들을 대략 학년별로 그리고 남녀별로 고려해서 524명(남 362; 여 162)을 조사한 것으로, 연세대 재학생 전집을 대상으로 했지만 임의표본을 얻어 조사한 것으로 조사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제목에서 지식, 태도, 행동을 다룬 조사로 인구조사에서는 KAP study(knowledge, attitude, practice)로 알려진 형태이다. 이훈구 교수는 한국행동과학 연구소에 재직할 당시 이런 종류의 조사에 익숙했는데, 그 흔적이 배어나온 것이다.

강원대와 경남대 교수가 주동이 되어 수행된 두 번째의 조사는 학생 670명, 성인 410명의 자료를 모아 그중에서 각각 637명과 36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했다. 대학생의 경우 서울 경기 지역의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성인은 10대 후반에서 60대까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으나 표본추출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이 없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질문지를 들였다는 소문이 나도는, 잘못된 조사의 전범으로 교실에서 사용된다는 말을 들었다.

차재호, 고재홍, 및 정지원의 조사는 마산과 서울 두지역의 고교생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서울의 경우는 강남구를 전집으로 잡아 그 안에서 국교 4학년, 국교 6년, 중교 2학년, 그리고 고교 1학년의 4개 하위집단을 정하고 이 안에서 남녀집단을 구별하여 모두 8개의 하위집단을 정하고 각각의 안에서 무선표본을 얻어 조사했다. 각 하위 집단 안의 학급수와 학생수를 공립과 사립별로 파악한 후 각 하위 집단에서 50명씩 공사립 학교 학생수의 비례에 따라 proportionate sampling으로 표본을 뽑아 조사했다. 혼성반이 있는 중교에서는 혼성반에서 뽑힌 남학생은 남학생 집단에, 뽑힌 여학생은 여학생 집단에 귀속시켰다.

마산의 경우는 남자중교에는 사립이 없고 여자중교에는 공립이 없는 특수 사정이 있었는데,



8개의 하위집단안에서 cluster sampling을 포함하는 3단계 표집법을 사용했다. 먼저 일정수의 학교를 뽑고, 다음에 이들 안에서 일정수의 학급을 뽑고, 뽑힌 학급안에서 일정수의 학생을 뽑았다. 각 단계의 선발과정은 체계적 무선표집(systematic random sampling) 절차를 따랐다. 공사립이 있는 고교의 경우는 공립과 사립에서 같은 수의 학생을 선발했다. 그렇게 해서 마산에서도 50명씩으로 된 8개 하위집단의 표본이 얻어졌다.

실제 질문지의 실시는 선발된 학생이 소속한 학급의 담임교사의 도움으로 어느 한 교실에서 이들을 모아 집단으로 질문에 답하게 했다. 실제 조사는 92년 2월중에 1주 이내의 기간에 행해졌다.

결국 차, 고, 및 정의 조사는 8개의 학생전집에서 대표적 표본을 얻어 조사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팀의 조사는 앞에서 든 2개의 조사와는 구별된다. 사전에 비교할 8개의 모집단(4×2)을 정하고 이 안에서 무선표본을 얻으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조사는 모델 조사연구와 가장 가까운 형태로 된 조사였다.

## ■ 1993년의 교통수단이용 실태 및 태도 비교 연구

1993년에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부설 심리과학연구소의 프로젝트로 “지방과 도시인의 교통수단 이용실태 및 태도 비교 연구”(차재호, 고재홍, 홍기원, 구정숙, 안미영, 정지원(1993)가 수행되었는데, 이 조사는 앞으로도 같은 연구가 같은 지역에서 실시될 것이란 예상하에 연도간 비교를 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교통이용실태는 해가 갈수록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가 반복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당시 서울대 심리학과 사회심리연구실에 있던 박사과정 학생들이었다. 이 조사는 경찰청 및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주관한 “교통질서 및 안전에 대한 국민여론 및 행동조사지표”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표집은 도시와 지방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서울의 강남구 대치동과경상남도 거창읍을 선정했다. 거창읍의 주민의 약 5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거창읍은 133개 리에 37개동으로 구성되고 그 안에는 261개 반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들 261개 반 모두를 표집틀(sampling frame)으로 삼았다. 여기서 10개반을 systematic random sampling 방식으로 선정하고 추가로 6개반을 더 선정해 모두 16개반을 선정했다. 먼저 선정된 10반에 들은 가구를 전수 조사하고 400가구에 미달인 경우에는 추가로 선정한 6개반에 들어가 추가로 가구를 선정했다. 각 가구에서 남녀 각 1명씩을 면접해 조사했다.

서울에서는 대치동의 경우는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무선으로 이 중에서 대치1동과 대치3동을 선정하고, 이 두 동 안에 포함된 407개의 반중에서 systematic random sampling으로 21개반을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1개 반은 약 20-25가구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총가구수

에서 차례로 가구 전수조사를 하는 방침하에 가구를 뽑아가다가 400가구를 채우는 반에서 선정을 끝냈다. 뽑힌 가구마다 남녀 1명씩을 표집하여 모두 400가구에서 800명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4쪽으로 된 것으로 모두 55개의 문항이 들어 있었다. 조사내용은 (1) 출퇴근길의 교통이용실태, (2) 외출시의 교통이용실태, (3) 자가용 이용 및 소유실태, (4), 운전과 교통사고 경험 실태, 그리고 (5) 교통수단 이용시의 문제점 및 개선할 점을 다뤘다.

## V. 통계와 전산기기의 활용

엄밀히 말해서 심리학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학계에도 관련이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적어둘 필요가 있는 것은 1962년 아시아재단의 후원으로 서울대에 그해 설립된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에도 card sorter와 card punching machine이 도입되었었다는 사실이다. 설립 직후 동 연구소는 IBM card sorter와 card punching machine 도입을 추진했는데, 1963년 무렵에는 IBM 082 Card Sorter와 이의 부속인 IBM 65 Auxilliary Card Counter, 그리고 IBM 카드 약간이 도입되었다. Sorter의 가격은 2,600불이었고, Counter의 가격은 225불이었다. 이것은 당시 내무부 통계국에 이어 두 번째로 들어온 것으로 기억한다. 카드 천공기가 없어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key punching machine을 주문해서 IBM 024 Card Punch가 도입되었다. 이것은 한물 간 기계였는데, 가격이 1,750불이었다. 이들 기계들의 구입비는 모두 아시아재단이 부담했다(차재호, 1988). 이 때 들어온 Sorter는 1999년 본인이 퇴임할 때까지는 서울대 심리학과와 창고에 들어 있었는데, 몇일전 학과사무실에 전화하니 처분되었다는 답만 들었다.

한국행동과학연구소가 수행한 1970년의 Family planning in Korea의 경우 연구진은 자료처리를 KIST 전산소에 맡기려고 했다. 당시 KIST 전산소는 가장 좋은 시설과 인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그곳 전산원 직원들이 t-test나 상관과 같은 통계처리를 해내지 못했는데, 당시 전산소가 통계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그곳 연구원들이 그런 통계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동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그곳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통계교육을 실시한 연후에야 비로서 그들이 통계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이훈구, 1998). 본인도 KIST 전산소와는 서울대가 관악으로 이사한 직후 좋지 않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나는 한국인의 태도와 신념에 관한 광범한 자료를 KIST 전산소에서 대학원생을 시켜 요인분석을 시키고 있었는데, 이 일을 돕는 KIST 연구원이 계속 자료 입력에 실수를 저질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수없이 일을 반복한 모양인데, KIST 전산소가 이 실수로 돌린 시간을 모두 전산기 사용료로 청구해와 본인이 지불을 거절한 일이 있다. 1970년의 행동과학연구소 프로젝트는 통계처리에 MCA나 다른 multivariate analysis를 처음으로 사용한 기록도 가지고 있다.

본인이 지휘한 행동과학연구소의 두 번째 큰 프로젝트인 “남아존중 연구”(영어 프로젝트명은 Boy preference and family planning in Korea)의 경우는 자료처리를 국내 전산소에서 하기도 했지만 대개의 경우 자료를 입력한 magnate tape을 필자나 연구팀의 연구원이 들로 하와이로 날아가서 1-2주씩 묵으면서 그곳의 East-West Center의 전산시설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했다. 이런 자료처리를 위한 출장이 그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서너번 있었다. 이 연구의 경우 연구가 1년이란 시한에 밀려 자료가 충분히 분석되기 전에 보고서를 쓰게 된 것이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 VI. 통계학과 조사연구법 교육

통계학과 심리학의 관계는 1946년으로 소급한다. 해방직후 미군정청에 소속한 전문가로 한국에 들어온 심리학자로 廉光燮(Dr. Yum)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는 시카고대학 도서관장을 지내던 사람이다. 그는 1948년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서울대학교가 태동할 할 때 미 군정청의 문교 관계 고문으로, 또 총장 고문으로 활약하면서 당시 남한에 있던 몇 안되는 심리학자들과 접촉을 하게 되었다. 그는 당시 서울대 문리대에 상주하면서 1947년 겨울 문리대 심리학과 연구실에서 이진숙, 이본영, 고순덕, 서명원(당시 조교) 등 교실원과 정한택, 김기환, 정양은, 등 학생들을 상대로 기초통계학과 검사법에 관한 비공식 강의를 했는데(차재호, 1976), 영어로 강의를 해서 알아듣기 어려웠다고 한다(정한택 교수와의 대화, 2007.6.1.). 이 비공식 강의에 사범대 학생 정범모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전에 1946년 2학기에는 문리대 심리학과 강의에서 고순덕 교수(당시 전임강사)가 기초통계학을 학생들에게 강의했다고 한다. 이처럼 통계학은 심리학에서는 일찍부터 강조되어왔던 것이다.

이때의 교수들은 우리나라 심리학의 원로교수들이고 당시 이들 강의를 청강했던 학생들도 정한택 교수만 제외하고 지금은 모두 타계한 상태이다. 이때 통계학 강의를 들은 사람들중 나중에 조사연구에 어느 정도라도 관련한 사람은 없으므로 심리학에서의 통계학의 흐름에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으나 조사연구의 발전과는 거의 무관한 사건이었다.

해방직후부터 심리학에는 통계와 심리측정 연구가 일찍 자리를 잡아 심리측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은 해방직후 서울대 문리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도미해서 LA의 사립 명문인 Occidental College에서 임상심리로 석사학위를 하고 1950년에 귀국해 이화여대 대학원장 서리로 영입되어 심리학과를 개설한 고순덕 교수이다. 잠시 한국 군에도 근무한 적이 있는 그는 한국주둔 미군의 요청으로 심리검사 제작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 밑에서 김성태와 같은 사람들이 연구를 도와 심리측정을 익혔다. 당시 중요한 연구주제는 심리측정의 일부인 정신물리학(psychophysics)이었다. 정범모 교수는 1950년에 Louisiana대 심

리학과를 1년 다닌 후 다음해 Chicago대 교육학과로 옮겨 석사학위를 하고 전쟁중인 1952년 귀국해서 서울대 사대 교수가 되었다. 부산 임시교사에서 사범대 교육학과 학생과 문리대 심리학과 학생들을 합반해서 기초 통계학 강의를 했다는 데 필자는 2학년 초에 이 강의를 들었다.

교육학과 심리학에서 통계학의 시조라고 부를만한 사람은 정범모 교수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는 1952년 심리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귀국해서 서울대의 사범대생과 문리대 심리학과 학생들에게 통계학을 가르쳤다. 그때 이 강의를 들은 학생의 상당수는 뒤에 연구에 종사하게 되는데, 조사연구적인 성격을 가진 연구들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학과 심리학쪽의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통계용어는 대체로 그의 강의나 책에서 나온 것이다.

통계학 교과서로는 정범모의 **교육심리의 통계적 방법**(배영사, 1956)가 최초이고, 1959년의 김재은의 **초급교육통계법**(민주교육사, 1959)가 뒤따랐다. 김재은은 필자가 1953년 1학기 정 교수의 통계학 강의를 들을 때 강의 조교였다. 1966년에는 김호권과 차재호의 Allen Edwards의 책 번역인 실험설계법(배영사, 1966)이 나왔다. 전반부를 본인이 맡아 번역했는데, 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도미할 때 하숙을 정리하고 방이 없어 약 1주일을 학생지도연구소 회의실의 회의 테이블 위에서 자면서(여름이라) 이 책의 번역을 계속했는데, 떠나는 날 새벽에 번역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다. 나중에 출판사가 책 20권을 미국으로 보내왔다. 그러나 인세는 한푼도 받지 못했다.

이 실험설계 책은 각종 가설검증법을 다루었는데, 처음으로 추리통계를 다루는 통계 교가서였다. 정범모의 첫 통계책이나 강의는 순전히 기술통계만을 다루어 sample을 표집이라고 쓰고 있었는데, 실험설계 책을 쓰면서 sampling과 구별할 필요를 느껴 본인은 sample을 표본으로 그리고 sampling을 표집으로 구분해 썼다. 이 책에서는 정범모를 따라 null hypothesis를 영(零) 가설이라 불렀는데,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후 관악에서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에게 필수과목인 고급심리통계와 고급실험설계를 가르칠 때 필자는 이를 “귀무가설”로 고쳐 불렀다. 실험설계 책에서는 또 mixed model을 “혼합규형(規型)”이라 불러보기도 했다.

1996년에 필자는 학부에서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심리학으로 학위를 하고 돌아와 통계를 가르치면서 통계학계의 용어를 그대로 도입해 씌우어서 용어의 혼란이 생겨 “심리학에서의 통계용어의 문제”란 글을 한국심리학회 회보에 발표했다(차재호, 1996). 나중에 생긴 통계학과들이 일본 통계학사전의 용어를 그대로 빌려다가 쓰면서 우리의 어감과 맞지 않는 것, 또 과거에 써오던 것과 다른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논란을 벌인 것이다. 이순복(1993) 교수가 발표한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통계용어의 고찰”이란 글이 자극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아직도 본인이 불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통계학계의 “변수”가 심리학계로 흘러들어와 정범모 교수 이래로 써오던 “변인”을 밀어내다시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상적인 수치를 다루는

통계학과 해석이 가해진 수치를 다루는 경험과학에서 variable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험과학에서 수치로 대표되는 variable은 해석이 가해진 그 무엇이다. 단어의 회상량, 친근감 등 의미가 있는 variable이다. 따라서 통계학의 통계와 심리학의 통계는 다르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통계학은 의례 “심리통계”라는 이름이 붙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고언은 통계학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을 향해 하는 말임을 명기해 둔다.

1976년 당시에 서울에 있던 5개의 심리학과에는 예외없이 심리통계 강의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고려대와 중앙대는 각기 통계과목을 2개씩(초급통계과 중급통계, 심리통계와 고급통계)를 두고 있었고, 이화여대는 심리통계 I과 심리통계 II를 두고 있었다. 성균관대는 특이하게 “통계조사법”이란 강의를 두고 있었다. 서울대의 경우는 1975년 캠퍼스종합화로 통계는 새로 생긴 계산통계학과에 가서 듣도록 했는데, 1976년에는 심리학과에 심리통계 강의를 부활되었다(차재호, 1976). 1962년에 본인이 서울대 문리대 강사시절에 정양은 교수가 가르치던 심리통계 강의를 대강하면서 통계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서울대 심리학과에는 심리학과가 출범한 1946년부터 통계 강의를 있어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심리학과도 이 점에서는 같을 것이다

조사법 강의에 대해서는 1976년 당시 서울대 심리학과(학부)에는 비실험적연구법이란 것이 있었고, 중앙대 심리학과와 성균관대 산업심리학과에는 심리조사법이, 각각 개설되어 있었다(차재호, 1976). 당시 심리학과는 서울에만 있었고 5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성균관대)에만 있었다. 대학원에는 조사법에 관련된 강의를 개설한 학과는 없었다. 서울대의 비실험적 연구법은 필자가 입안한 심리학과 교과교정 속에 들어있던 것이고 본인이 담당했는데, 조사연구의 기초적 개념과 약간의 실습을 접해 가르쳤다.

## VII. 심리학에서의 조사연구의 특징

필자는 1990년(차재호, 1990)에 “현장연구의 실제: 문제점과 제안”이란 글을 발표했는데, 이 글의 대부분은 조사연구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내용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으나 여기서 다른 제목만을 적어보면 연구의 분류, 연구변인의 엄선, 총화의 두가지 목적, 자료의 비교가능성 유지의 문제, 대표적 표본에 대한 대안, 연구대상의 시간적 공간적 정위, 조사시기를 변인으로 삼는 문제, 동시적 자료에서의 시대적 변동의 추정, 평균치의 제시의 중요성, 조사자료에서의 인과관계의 추리, 등이었다. 심리학자로서는 비실험적인 방법에 대한 가장 깊은 논의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들중 일부는 다음에 이야기하는 심리학의 조사연구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심리학의 조사연구의 특징을 들면 여러가지를 들 수 있지만 (1) 적어도 개념적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 연구에 임하는 것; (2) 자료에서 현상기술보다는 변인간의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3) 단일 모집단을 상정하기 보다는 몇 개의 비교집단을 상정하고 설계를 하는 일; (4) 소지역을 표집의 대상으로 삼는 점; (5) 변인 측정에서 단일질문으로 측정하기보다는 다수질문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6) 카테고리 변인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7) 면접으로 질문지 자료를 얻어내는 방법을 주로 쓴다는 점; (8) 질문지 회수율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특징인 조사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구별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심리학의 기본방법이 실험이기 때문이다. 대표적 표본을 요하는 조사연구는 심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응용심리학적 연구에서 실험법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쓰게 되는데, 그때도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알고 싶어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리학자는 조사를 할 때도 개념적으로나마 구별하려 든다. 그런데 이제는 causal modeling 기법의 발달로 단순히 개념차원에서만 다루던 인과관계가 이제는 자료에 의해 밝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조사연구가 심리학자의 요구를 보다 많이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특징은 현상기술보다 변인간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에 초점을 둔다는 것인데, 이는 심리학의 훈련의 탓이다. 일종의 심리학의 학문적 패러다임이다. 한 사회심리학 교과서(Aronson, Wilson, & Akert, 1999)는 사회심리학의 방법에 관찰법, 상광법, 그리고 실험법이 있다고 밝힌다. 한 심리학개론 책(Zimbardo & Weber, 1997)은 심리학의 연구설계(research design)에 상관법(correlational method)과 실험법(experimentation)이 있다고 말한다. 심리학에서는 임의표본을 얻어 상관연구를 하는 경우가 극히 많다. 실험연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거의 그런 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는 상관연구는 될 수 있어도 조사연구라고 볼 수는 없다. 무선표본을 얻으면 조사연구의 테두리 안에서 상관연구가 될 수도 있다. 70년대와 80년에 상당수 있었던 심리학자들의 지역 고정관념과 편견의 연구(고홍화, 김현섭, 1976; 김진국, 1977; 김진국, 1984, 1987; 김혜숙, 1988; 이진환, 1988 참조)도 이런 관점에서 조사연구라고 할 수 없다.

세 번째 특징은 2개 이상의 모집단을 상정하는 경향인데, 이는 심리학자가 현상기술에 관심이 적기 때문이다. 단일 모집단을 두는 것은 실태조사와 같은 조사에서 흔히 있게 마련인데, 심리학자들은 실태조사보다는 어떤 가설의 검증이나 어떤 변인의 효과가 주관심사이므로 모집단을 2개 이상 설정해서 표집을 하는 경향이 있다. 집단간의 차이에 더 관심이 있고 어떤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몇 퍼센트가 긍정적으로 답하느냐 하는 것은 관심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집단의 특성 자체도 관심사가 아니라 변인들간의 상관관계가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집단은 단지 이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매개체일 뿐이다. 그래도 각 집단은 대표적 표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지율과 같은 기술적 수치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상관관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1972년의 남아존중 연구에서 남아존중(=남아욕구) 점수가 높을 수록(남아존중이 높을 수록) 가족계획실천율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 상관은 전남집단에서는 .01% 수준에서, 혼성집단과 전여집단에서는 각각 1% 수준에서 유의했다. 다시 말하면, 유독히 아들만 있는 부인집단에서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것은 아들이 하나정도 있거나 아들이 하나도 없는 집단(전여집단)에서는 아들을 더 갖기 위해 가족계획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남아존중 여부는 상대적으로 중요치 않은 것이다. 그런데, 아들이 2명 이상인 집단에서는 아들용구가 상당히 충족되었으므로 아이를 더 낳고 안 낳고는 남아존중 태도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남아존중태도(=남아욕구)가 높은 부인은 가족계획을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부인은 가족계획을 하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성격이 다른 집단들을 만들어 조사했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같은 1972년 연구에 남아욕구와 가족계획실천율을 이번에는 자녀수 별 집단간에 비교해 보았는데, 들의 상관관계를 소자녀(2명), 중자녀(3-4명), 그리고 다자녀(5명 이상)의 3개 집단간에 비교했더니 상관관계는 중자녀집단에서 가장 높았다(.01%수준의 유의도). 소집단에서는 1%수준에서 유의했고, 다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중자녀집단에서 상관관이 가장 높았던 이유는 다자녀 집단에서는 무조건 아이를 그만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소자녀집단에서는 더 낳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남아욕구의 강도에 따라 가족계획 여부가 영향을 좀 받는 편이었고, 중자녀 집단에서는 당시의 관념으로 아이 셋이나 4명이면 더 낳을 수도 그만 둘 수도 있는 애매한 지점인데, 따라서 남아욕구의 강도가 가족계획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커다란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네 번째 특징은 조사대상을 작게 잡는 것이다. 국가나 서울특별시 등 큰 지역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위가 바로 모집단을 정의하게 되지만, 변인들간의 함수관계가 주목적인 경우는 그렇게 큰 단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술적이 아닌, 이론적 성격의 연구는 자주하게 되고 재정적인 지원도 받기 어렵다. 따라서 큰 규모의 모집단보다는 작은 규모의 모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삼게 된다. 앞에서 본 남아존중 연구에서 서울-중류, 서울-하류, 그리고 농촌의 3개 모집단을 설정했는데, 서울의 두 표본은 우선 서울의 어느 3개동을 임의로 선정하고 그 안에서 중류층이 사는 15개 통과 하류층이 주로 사는 17개 통을 구분한 뒤 아 안에서 기혼부인으로 45세이하이고 자녀를 2명 이상 둔 부부쌍을 전집(모집단)으로 잡고 무선표본을 추출하고, "농촌"은 경북 영항군의 2개면을 임의로 선정해 위 조건에 맞는 부부쌍을 모집단으로 삼고 무선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했다.

다른 예를 본인이 지도한 6편의 가정대 석사논문에서 볼 수 있는데(차재호, 1985), 이들은 서울의 일정지역(예: 서대문구 불광동 안의 몇 개 지역)을 대상으로 무선표본을 얻어 우리 나라 유아의 낮가림, 격리불안, 대물애착 등을 연구했다. 연구마다 무선표집을 했지만 극히 한정된

지역을 모집단으로 삼았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주관심사이지만 또 아이의 어떤 특징의 발생을(예: 낮가림 발생을)이나 발생시기도 그런대로 중요하다. 그래서 임의적 표본보다는 한정된 지역이라도 대표적 표본에서 얻은 수치가 중요해진다. 이런 수치는 전국은 아니지만 적어도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거주지역을 대표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수행한 많은 조사에서는 대체로 이런 표집전략을 고수해왔다.

**다섯 번째 특징**은 단일질문을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질문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해서 어떤 변인을 측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여론조사보다는 이론적인 연구를 지향하기 때문인데, 이론적 변인은 대개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어떤 한 질문이나 진술로 어떤 이론적 변인을 포착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는 이론적 변인을 사용하므로써 한 연구를 일반독자에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반대로 여론조사의 결과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권위주의 태도라든가 남아선호 태도, 급진주의 태도, 통제부위신념(locus of control) 등은 모두 이론적 구성개념들이고 여러 문항으로 측정된다.

**여섯 번째의 특징**인 카테고리 변인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측정하는 변인은 점수의 형태로 나온다. 한편 단일 질문에 대한 답은 찬성, 반대와 같이 2-3개의 카테고리(유목)로 나온다. 따라서 그런 단일 변인을 사용하는 조사는 결과는 표를 만들어 그런 유목별로 응답한 응답자의 수를 표시한다. 기술을 위주로 하는 조사에서는 심리학자가 하는 조사에서 보다 많은 질문을 사용한다. 이들 질문 하나하나가 모두 종속변인으로 취급된다.

종속변인을 카테고리별로 표시하면 결과는 각 카테고리별로 답한 응답자의 수가 된다. 결과표는 카테고리별로 응답자의 수를 표시한 것이 된다. 이에 비해 심리학자는 어느 집단에서 응답자들이 낸 점수의 평균을 결과로 제시한다. 상관관계에 관심이 있는 경우라도 사회학자와 심리학자의 자료정리 하는 방식이 다르다. 사회학자나 사회학적 접근을 쓰는 사람들은 두 변인들의 cross-tabulation표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빈도표이다. 이에 비해 심리학자는 단순히 상관계수만 제시하고 마는 경향이 있다. 한 쪽에서는 표를, 다른 한 쪽에서는 상관계수 치 하나를 제시한다. 그런데, 상관계수만을 나열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점수는 카테고리로 묶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지만 때로는 결과를 단순히 상관계수보다는 교차 빈도표로 표시하는 것이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다(차재호, 1999)

**일곱 번째 특징**은 주로 면접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질문지 속에는 척도 등이 포함되어있어 전화로 조사를 하는 방식은 적합지 않다. 인터넷을 통한 자료수집은 가능할 것이다.

**여덟 번째 특징**은 질문지 회수율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것이다. 서울대생 집단특성 연구에서 보았듯이 본인은 회수율을 95% 이상으로 잡고 조사를 한다. 소규모 조사일 때는 거의 100%의 회수율을 기대한다. 탈락율이 10%나 그 이상되면 무선표본의 성질을 상실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생각 자체는 실험연구의 패러다임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래서 본인은 조사를 할 때는 조사원에게 그 점을 강조하고, 자료를 얻는데 실패하면 몇차례라고 다시 방문해서 뽑힌 사람의 자료를 얻어내게 한다. 따라서 일차 면접시 필수적으로 응답자의 거주지나 전화번호를 알아두게 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5%의 자료를 얻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95%의 자료를 얻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만큼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자세로 조사를 감독한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필자 개인의 편향을 보여주는 것이고 심리학의 조사연구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험심리학의 훈련을 제대로 받은 연구자라면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심리학에서의 조사연구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요즘 심리학과에서는 조사연구법의 강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현재 심리학에서는 조사연구는 남의 일로 간주되고 있다. 여기에 든 조사들도 심리학계에서는 거의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 발표가 심리학계에 조사연구의 전통이 심리학 내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또 이제까지 한번도 정리되어 보지 않았던 심리학내의 조사연구활동을 불완전하나마 엮어 놓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틀리거나 빠진 것을 후학들이 보시정하고 보완해 줄 것이라 믿는다.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 참고문헌

- 고흥화, 김현섭(1976) 한국인의 지역적 편견. 미출판 원고. 고흥화 편, 자료로 엮은 한국인의 지역감정.(Pp. 207-208). 서울: 성원사.
- 김재은(1959). 초급교육통계법. 서울: 민주교육사.
- 김정오(1998). 자녀관 연구. 한국행동과학연구소 편, **인간행동의 탐구**.(Pp. 34-43). 서울: 교육과학사.
- 김진국(1977). 한국대학생의 지역적 편견 연구. 전국대학생 학술연구발표논문집: 사회과학분야. 2, 11-40.
- 김진국(1984). 지역민간의 편견적 태도 연구. 한생생활연구(전남대학교), 14, 150-65.
- 김진국(1987). 영호남 대학생의 상호간 차이지각연구. **사회심리학연구**, 3(2), 113-147.
- 김혜숙(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 123-170). 서울: 성원사.
- 김호권·차재호 편역(1966). **실험설계법**. 서울: 배영사.
- 김화중·정영운·김홍정·이훈구·장현갑(1963). 외국인에 대한 태도조사. **심리학보(서울대 문리대 심리학과)**, 창간호, 26-44.
- 심은철, 박영호 (1992). 수고권 성인 및 대학생의 정보사회화에 대한 의식조사. 한국심리학회 편(1992). **정보화 사회를 위한 국민의식조사--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1992.2.20. 서울대학병원 소아임상 제1강의실)**. 서울: 편자.
- 이순목(1993).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통계용어의 고찰. **응용통계연구(고대 응용통계연구소)**, 8, 1-18.
- 이진환(1988). 부산지역인의 타지역인에 대한 인상 및 태도.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 123-170). 서울: 성원사.
- 이훈구(1992). 정보화사회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 태도, 행동. 한국심리학회 편(1992). **정보화 사회를 위한 국민의식조사--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1992.2.20. 서울대학병원 소아임상 제1강의실)**. 서울: 편자.
- 이훈구(1998). 가족계획의 심리학적 탐색연구. 한국행동과학 연구소 편, **인간행동의 탐구**.(Pp. 21-26). 서울: 교육과학사.
- 이훈구(2005). **대학이 변하고 있다: 캠퍼스 라이프 연구**. 서울: 법문사.
- 중앙교육연구소 편(1962). **실적개요(1953-1961)**. 서울: 편자.
- 중앙교육연구소 편(1968). **실적개요(1962-1967)**. 서울: 편자.
- 차재호(1976). 한국심리학의 역사, 현황 및 사회과학협동연구의 방향. **사회과학논문집(서울**

- 대), 1, 61-100.
- 차재호, 원호택, 구정숙, 정지원(1988). 서울대생의 집단특성 연구. 1986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 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차재호, 정범모, 이성진(1975). 한국의 남아존중사상: 사회, 문화, 심리학적 분석.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차재호, 장영수(1982). 서울대생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 조사. 미발표 연구.
- 차재호(1985). 한국 유아의 애착 발달. 한국심리학회 편, 제4회 연수회 “발달심리학 연구의 최근 동향.” (Pp. 37-62). 서울: 편자.
- 차재호, 나은영(1985). 서울지역 대학생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 조사. 미발표 연구.
- 차재호(1988).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의 설립과 공헌. 학생연구(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 1988, 25(창립 25주년 기념특집호), 5-16.
- 차재호, 구정숙(1988). 조사연구 활동의 역사. 학생연구(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 1988, 25(창립 25주년 기념특집호), 48-58.
- 차재호(1990). 현장연구의 실제: 문제점과 제안. 한국심리학회 편, 현장연구방법론 총론. (Pp. 191-217). (제8회 동계연수회 발표)
- 차재호(1991). 외국인에 대한 학생과 성인의 태도. 1986년도 학술조성비 자유공모과제 연구 보고서. 157p.
- 차재호, 고재홍, 정지원(1992). 서울과 마산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의 정보사회화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심리학회 편, 정보화 사회를 위한 국민의식조사--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1992.2.20. 서울대학병원 소아임상 제1강의실). 서울: 편자.
- 차재호, 최인철(1992). 외국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1992년. 심리과학(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심리과학연구소), 1, 1-22.
- 차재호, 장영수(1992). 한국대학생의 중요한 가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 123-136.
- 차재호, 최인철(1992). 외국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1992년. 심리과학(서울대 심리과학연구소), 1, 1-23.
- 차재호, 고재홍, 정지원(1992). 서울과 마산지역의 초중고교 학생의 정보사회화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심리학회 편,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정보화 사회를 위한 국민의식 조사.(Pp. 67-93). 서울: 편자.
- 차재호, 고재홍, 홍기원, 구정숙, 안미영, 정지원(1993). 지방과 도시인의 교통수단 이용실태 및 태도 비교 연구. 도로교통안전협회 보고서. pp. 1-71.
- 차재호(1996). 심리학에서의 통계용어의 문제. 심리학회보, 9월(제96호), 13-17. (회원 기고의 글)

- 차재호(1998). 남아존중 연구. 한국행동과학연구소 편, *인간행동의 탐구*. (Pp. 26-34). 서울: 교육과학사.
- 한국심리학회 편(1992). *정보화 사회를 위한 국민의식조사-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1992. 2. 20. 서울대학병원 소아임상 제1강의실). 서울: 편자.
- Arnold, F, Bulatao, R.A, Buripakdi, C., Chung, B.J., Fawcett, J.T., Iritani, T., Lee, S.J., & Wu, T-S.(1975). *Introduc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Vol. 1. The value of children: A cross-national study*. Honolulu, HI: East-West Center.
- Aronson, E., Wilson, T.D., & Akert, R.M.(1999). *Social psychology*. 3th ed. NY: Longman.
- Chung, B.M., Lee, S.C., Palmore, J.A., Lee, S.J.(1972). *Psychological perspectives: Family planning in Korea*. Seoul: Hollim.
- Chung, B.M., Lee S.J., & Cha, J.-H.(1974). Boy preference and family planning in Korea. Project report. Seoul: Korean Institute for Research in Behavioral Sciences.
- David, H., & Lee, S.J.(Eds.)(1974). *Soci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fertility in Asia*. Washington, D.C.: Transnational Family Research Institute.
- Eysenck, H. J.(1957). *Sense and nonsense in psychology*. London: Penguin Books.
- Lee, S.J., & Kim J.O.(1979). *The value of children: A cross-national study-Korea*. Honolulu, HI: East-West Center.
- Zimbardo, P., & Weber, A.L. (1997). *Psychology*. 2nd ed. NY: Longman.